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족 나눔 설교 후, 어린 자녀부터 돌아가며

- 올 한 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느낀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습니까?
- 부모님께(또는 자녀에게) 가장 감사한 것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 올해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 준 이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에게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기도 가족 중 한 사람이 대표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그 순종에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소서. 만남의 복을 주셔서 우리가 먼저 가족과 이웃에게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해지게 하소서. 이 믿음이 다음 세대로 바르게 이어지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며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26 추석맞이

가족예배순서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소망하며」

룻기 1:6~18

2026년 9월 25일(금) 추석

연휴 9월 24일(목) ~ 9월 26일(토) · 음력 8월 15일

예배 순서

목 도	말씀으로 예배를 엽니다	다같이
민수기 6:24~26	여호와와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경봉독	룻기 1장 6~18절	다같이
찬 양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다같이
가족합심기도	세 가지 제목을 함께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설 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소망하며	설교자
기 도	가족예배 기도문	가족 중에서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며 함께	다같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께

1. 성경봉독은 한 절씩 돌아가며 읽으면 모든 세대가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2. 설교는 그대로 읽으셔도 좋고, 세 요점만 짚어 가정 형편에 맞게 나누셔도 좋습니다.
3. 설교 후에는 뒷면의 **가족 나눔**을 어린 자녀부터 돌아가며 나누어 보십시오.

6.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7.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8.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9.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추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10.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11.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이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12. 내 딸들이 되돌아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면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13.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이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와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14.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룯은 그를 붙잡았더라 15.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6. 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음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8. 나오미가 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찬 양 다같이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 통일찬송가 434장

※ 찬송가를 펴서 1~3절을 함께 부릅니다.

가족 합심기도 한 제목씩 함께 소리 내어

1.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섬기는 가정 되게 하소서.
2.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게 하소서.
3. 만남의 복을 주시고, 우리가 먼저 가족과 이웃에게 좋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소망하며

룯기 1:6~18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운 한 여인이 나옵니다. 룯입니다. 그는 이방 모압 여인이었고,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으며, 시댁은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희망을 말하기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의 가문이 시작되었고,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랐습니다.

시각장애를 딛고 미국 백악관 정책차관보에 오른 강영우 박사는 『원동력』에서, 인물은 길러지고 명문가는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도 그렇습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만들어 집니까?

1.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룯 1:16b)

룯은 하나님에 대해 들은 데서 멈추지 않고,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 우리 뜻대로 된 일은 많지 않습니다. 부모를 고른 것도 아니고, 배우자와 자녀도 내 마음같이 되지 않으며, 내일 일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명문가는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데서 시작됩니다.

2. 온 마음과 정성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룯은 하나님과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 네 가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첫째, 고향입니다. 모압 사람이면서 낯선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둘째, 미래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길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셋째, 평안입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면 편히 살 수 있었지만 고생이 뻔히 보이는 길을 택했습니다. 넷째, 자존심입니다. 생계를 위해 남의 밭에서 이삭 줍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귀하게 보시고 약속으로 갚으십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엡 6:2~3)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3. 좋은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하십시오

룯에게는 좋은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룯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은 어머니가 섬기던 하나님, 어머니의 삶에서 보였던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는 고백입니다. 룯은 그 만남을 통해 믿음을 얻었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가족과 이웃에게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좋은 사람이면, 좋지 않은 만남에서도 변화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 됩니다.

맺는 말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것은 우리를 드러내거나 자랑하려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함이며, 무엇보다 이 믿음을 자녀에게 바르게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올해 추석, 우리 가정의 그 길에 서기를 축복합니다.